

전남 전기차 거점도시 급부상

AD모터스 영광에 627억 투입 저속형 전기차 생산

CT&T·㈜에코넥스·지앤디엔텍도 공장 건립 계획

전남도가 영광을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 거점도시' 조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정기호 영광군수가, ㈜AD모터스 유영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하고 저속 전기 자동차 (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이런 협약에 따라 AD모터스는 오는 2014년까지 영광군 대일반산단지에서 627억원의 투자를 투입, 2만평 규모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저속전기자동차와 도심형 전기자동차(UEV: Urban Electric Vehicle) 100km/h로 120~140km를 달릴 수 있도록 생산하게 된다.

AD모터스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리튬전지 전기자동차 '체인지(Change)'를 개발·출시한 코스닥 상장회사로, 체인지의 경우 한 번(가정용 6~7시간) 충전으로 60km/h의 속도로 80~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AD모터스는 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장이 건

립되면 이미 개발한 저속 전기자동차를 비롯, 현재 개발중인 도심형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단계적으로 고속 전기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E-버스(Bus), E-선박(Boat)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영광 지역은 이미 전기차 전문기업 CT&T(씨티엔티)가 지난 2009년 투자협약을 통해 5만평 규모의 생산공장 건립을 결정했다. 광주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지앤디엔텍(옛 탑알앤디)이 지난해 7월 7000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또 전기차 연구개발·제조업체인 ㈜에코넥스가 지난달 2만평 규모의 직구동(直驅動·Electric Direct Drive) 전기자동차 모터 생산 공장을 건립키로 한 데다, 이번 AD모터스까지 입주를 결정해 사실상 국내 전기자동차산업 중심지로 확고한 기반 구축을 했다는 평가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육성'사업과 연계, 영광이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구축을 통한 친환경 전기차 거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주)AD모터스 유영선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정기호 영광군수와 투자협약을 맺은 뒤 AD모터스 개발한 저속 전기자동차 '체인지'의 사양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AD모터스의 전기차 '체인지'

말했다.

정기호 군수는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기업을 잇달아 유치한 영광군이 세계 4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

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다음달 전기자동차 거점 도시 1곳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해 4월 서해안고속도로와 일부 국도를 제외한 국내 60km 이하 모든 도로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3대를 사들여 관광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두바이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車·항공업계 소비상...정유사는 기름값 인하 압박 올상

22일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항공과 자동차 등 기름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계에는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고,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력에 직면한 정유업계도 난처한 상황이다.

기름값 인상은 전반적인 원자재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도 불가피하다. 다만 건설과 조선 등 오일달러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일부 업종에는 부진을 극복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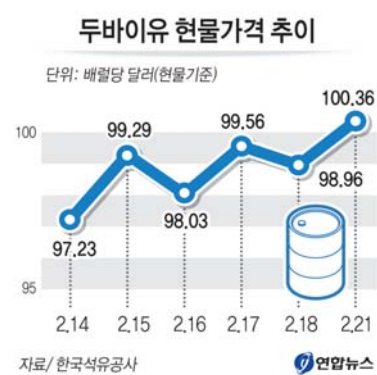
가장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항공업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연평균 각각 347억원, 10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양사 모두 오래전부터 원가절감 노력을 체질화한 상태다.

탐승률과 운항 시간대 등에 따른 효율성의 타격을 분석하고, 엔진 효율증대를 위한 엔진 내부 물 세척

과 경량 화물탑재용기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또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비, 상대적으로 유가가 쌀 때 항공유를 미리 사두는 '항공유 헷징' 비율을 현재 25%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업계는 고유가가 연료 비용 부담이 큰 대형차 위주로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고연비, 소형차, 친환경차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는 대표적으로 연료를 직분사해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GDi 엔진을 개발, 신차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아반떼, 엑센트 등 지난해 출시한 고연비차와 함께 올해는 신형 모닝과 프라이드, 벨로스터 등 연비가 좋은 소형차 판매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GM의 고연비 경차 및 소형차를 개발하는 동시에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 양산 모델을 올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연료 차량 개발을 강화해나갈 예정



두바이유 현물가격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현물기준))

자료/한국석유공사 연방뉴스

이다. 정유업계는 통상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 정제유인이 커져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 자체는 호재다. 실제 최고유가였던 2008년과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정유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정부의 '기름값 잡기'가 절정에 달해 교육지출로 국내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마냥 미소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연방뉴스

전세난 속 광주 국민임대 3천여가구 입주 시작

전세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에 모처럼 국민임대 아파트 3000여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모처럼 광주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였다.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월까지 광주지역에 국민임대 아파트 3123가구가 일반분양 아파트 315가구가 입주한다. LH는 지난 17일부터 광주 첨단2지구 2개 블록에 국

민임대 아파트 1908가구의 입주를 시작했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36㎡ 1098가구, 46㎡ 523가구, 51㎡ 287가구 등이다. LH는 또 당초 5월 입주할 계획이던 광주 수완7단지에 국민임대 아파트 1215가구를 한 달 앞당겨 오는 4월 입주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39㎡ 590가구, 46㎡ 625가구다.

이와 함께 남양건설은 지난달 말부터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남양휴먼2

차 315가구의 입주를 시작했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 유니버시티시대대를 앞두고 화정주공과 입주주공의 재건축으로 4000가구에 달하는 입주주민들이 이동하게 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는 4월까지 3000여가구의 국민임대가 입주하게 돼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인 창조기업' R&D 자금 중기청, 25곳에 2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1인 창조기업 25군대를 선정해 모두 20억원의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연구장비가 없거나 기술개발 인프라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idea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1인 창조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다른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계획

을 내야 한다. 중기청은 지난해에도 모두 2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평균 7680만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했다. /연방뉴스

코스피지수	1,969.92 (-35.38)
코스닥지수	512.06 (-8.53)
금리 (국고채 3년)	3.89% (-0.07)
원·달러 환율	1,127.60원 (+9.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범 현대家 '정주영 회장 10주기' 합동추모

현대그룹은 불참

오는 3월21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주기 행사가 범 현대가(家) 기업들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행사를 총괄하는 현대차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사진으로 담아낸 '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사진전'과 '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음악회'를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룹 측은 "각 사별로 진행하던 정 명예회장 추모행사를 10주기에 범 현대가 기업들이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추모 사진전은 3월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

관과 범 현대가 기업의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사진전에는 정 명예회장의 생애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기까지의 경영활동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한국 경제사에 남겨진 고인의 발자취와 기업이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또 추모 음악회는 3월1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범 현대가 기업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아산재단 등이다. 현대건설 인수전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현대그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방뉴스

5년 임대주택 용지 7년만에 공급 재개

이달말부터 시행...분양가보다 10% 싸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7년 만에 재개된다.

또 5,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규정이 완화돼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3 및 2.11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3월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 용지가 7년 만에 다시 분양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 5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증금자리 주택과 일반 택지지구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가구 수의 5% 안의 범위

에서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싸게 공급한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5,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이 투입된 공공임대내의 경우 현재 보증금이 8000만원, 월 임대료가 13만원이라면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1억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를 4만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연방뉴스

古家 고향의 맛

제1등 고가약소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청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소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Arts Hall Hotel & Wedding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관공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히니문 톨러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펠라비와 페엑스수모비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 - 3,4.5,10,11,12월 / 2만8천원 - 1,2,6,9월 / 2만6천원 - 7,8월)
11. 이브닝예식 뷔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러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객실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26번지(상무지구 톨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